

둘이 함께 한 길로 가는 과정

-유치초 · 중통합학교운영 사례 발표

장흥유치중학교 박효숙

I. 일반현황

1. 유치초 · 중학교 개교

2002년 장흥댐이 만들어짐에 따라 장흥유치동초등학교 자리에 2002.03.01. 유치초중 통합 개교하였다.

가. 학생 수와 통학생 현황

1) 학생 수 현황(2018년 8.22. 현재)

학년	유치원	초							중				총계
		1	2	3	4	5	6	계	1	2	3	계	
학급수	1	1	1	1	1	1	1	6	1	1	1	3	9
학생수	4	2	4	4	6	7	3	26	6	9	6	21	51

2) 통학생 현황

지역	장흥읍, 부산면				유치면				합계
	유	초	중	계	유	초	중	계	
재학생	5	26	21	51	5	26	21	53	51
통학생	1	12	11	24	4	10	8	22	46
비율(%)	20	44	52	47	80	40	38	41	88

- 현재 본교 학생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유치면에서 진학하는 학생수보다 장흥읍과 부산면에서 통학하는 학생수는 점차 늘고 있음.

나. 교직원 현황

구분	교육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			계	총계
	교장	교감	보직 교사	교사	보건 교사	영양 교사	위원 교사	기간제 교사 (강사)	계	행정 실장	주 무관	계	교 무 행 정 사	조 리 사	조 리 원		
초		1	3	3	1	1	1	1	11		3	3	2	1	1	4	18
중	1		3	5				1	10	1	1	2	1			1	13
계	1	1	6	8	1	1	1	2	21	1	4	5	3	1	1	5	31

- 교장은 공모제 (2015. 9. 1.자)로 중등자격이며, 교감은 초등 자격1명이다.

2. 무지개학교(혁신학교) 운영

2013. 3. 1.~2017. 2. 28.(4년)

2017. 3. 1.~2019. 2. 28.(2년)

II. 초·중 통합운영 상황

1. 교명 및 학교 조직

가. 교명 및 학교홈페이지 통합운영

학교명은 유치초등학교와 장흥유치중학교로 분리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학교 홈페이지는 통합 운영하고 있음.

나. 교무실 및 행정실 통합 운영

- 교무실과 행정실은 통합운영하고 있으나 공문서 처리와 문서관리시스템은 통합운영하고 있지 않음.
- 같은 공간에 통합하고 있으므로 유기적인 상호관계가 유지되고 인적 교류가 활발함.
- 교감, 교무행정사, 초등 교과전담교사, 중등 교사가 한 공간으로 통합 운영하여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추진하는데 의사소통이 용이함.

다. 학교운영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재·교구 및 도서 선정, 학교장 위임전결 규정을 통합 운영하고 있음
- 학부모가 참여해야 하는 위원회에 학교교육활동에 활동할 수 있는 학부모님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통합 운영이 더 효율적임.

2. 교육과정 운영

가. 학교 교육 비전 및 교육 중점 과제

1) 학교 교육 비전

배움이 즐거운 교실, 꿈을 가꾸는 행복한 학교

2) 교육 중점 과제



나. 초·중 통합 교육활동

1) 초·중 통합 9년 정규교육과정 모색

가) 자전거 도전활동

- 초등: 화순이양홍수조절지, 정남진해안도로
- 중등: 영산강자전거길, 정남진해안도로

나) 독서·진로 활동을 통한 나의 꿈 가꾸기

- 아침독서 20: 사제동행독서활동(08:35 ~ 08:55)
- 유치초중학교 야간마을도서관운영 (매주 월, 목 17:30 ~ 20:30)
- 독서캠프, 독서토론, 백일장
- 책방 나들이(초·중 연1회)

다) 국제체험활동

- 홀수년은 중학생 2-3학년, 짝수년은 초등학생 5-6학년 실시
- 초등학생 중국 상해 일대, 중학생 러시아 연해주
- 민족의 역사 현장을 찾아가는 프로젝트 실시

라) 역사문화체험활동

- 초·중 역사문화체험활동 교육과정과 9년 과정 준비
- 중학생은 3개년으로 백제, 신라, 고구려 역사체험활동 계획)

2) 정규과정 이외 다양한 재능계발을 위한 방과후학교 연계

- 초등학생 5학년부터 중학생까지 희망원 신청으로 프로그램 개설
- 방송댄스(중학교에서 개설), 공예(초등학교에서 개설), 뉴스포츠, 애니메이션

3) 공동행사를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가) 입학식/졸업식, 체육대회, 학교축제, 생일 떡 나누기, 김장김치 봉사활동, 경로위안잔치, 유치가을미술전시회, 과학의 날 행사

나) 4·16 세월호, 인성주간, 금연교육 등 시사계기 교육활동은 학생들의 급별에 맞게 수업활동 재구성하여 실시

다. 초·중통합 교육활동을 위한 교육공동체 문화 형성

1) 교직원 소통구조 시스템화

- 월 1회 전교직원 월례회의(매월 4주 목요일)
- 주제 중심 교직원 소통 시간 마련

(교육과정평가 및 워크숍, 교육과정설명회 등)

- 월 2회 초·중 급별 회의(매월 1, 3주 목요일)
- 기획회의(교장, 교감, 행정실장, 초중 교무부장 주 1회)
- 2) 교육주체로 우뚝 서는 학생자치회
 - 함께 만들어가는 생활규정과 평화로운 학교만들기 프로젝트
 - 2016, 2017년은 초·중등 전교생 모여 다모임 실시
 - 2018년은 초등학생 4학년부터 중학생 전체 분기별 다모임 실시
 - 공통으로 실시하는 행사 및 학교생활, 건의사항 논의
- 3) 지역과 함께하는 학부모회
 - 학부모 밴드를 활용한 소통구조 마련
 - 학부모 독서 동아리 '책각시'활동 실시
 - 야간 유치마을 도서관 운영을 통한 교육활동 동반자로서 학부모회
 - 지역 어른들과 함께하는 평생교육활동 실시함에 따라 학교 공간이 주민들의 평생교육과 소통의 공간으로 확대(캘리그래피 교육)

라. 초·중통합 교육시설 및 설비의 통합운영

- 1) 가정실, 컴퓨터실, 강당, 도서실, 방송실, 급식실, 운동장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음
- 2) 통학버스 2대가 통합하여 운영함에 따라 중학생 중 읍에서 전학 오는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음.

Ⅲ. 초·중통합학교 문제점, 개선방안 및 시사점

1. 초·중통합학교 운영 어려운 점 및 문제점

가. 교장, 교감 각 1명씩 배정되어 초·중등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학교문화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해 교직원간의 갈등의 요소가 표출되는 경우가 있음.

나. 교감은 초등과 중등을 포함한 행정업무를 통괄하여야 하는 과

중한 업무 부담을 짊어져야 함.

- 다.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시간 조절이 특별하게 운영이 발생한 경우 유치원, 초등, 중등까지 시정을 조절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함.
- 라. 초등학교 보건교사가 중학교 검입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시스템적으로 교육활동과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 마. 행정적으로 두 학교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시설 면에서 초등용, 중등용으로 분리되어 있어 관리 책임자와 사용자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음.
- 바. 각종 행사 운영에서 교육과정 및 발달 단계의 차이로 인해 학생들의 의견과 활동을 구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체육대회와 축제 등 초등과 중등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문화의 차이, 아이들의 성장과 교육목표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2. 개선방향

- 가. 초·중통합학교 운영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교직원을 위한 연수, 교육, 컨설팅이 필요하다. 대부분 선생님들은 통합학교에 대한 목적과 방향에 대해 모르는 상태에서 발령을 받았으며, 발령을 받은 후에도 도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실시하는 연수나 교육, 컨설팅을 받지 않고 학교에 근무하므로 초·중통합학교 교육과정과 운영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 나. 행정적, 업무적으로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교는 초·중통합학교로 일체형 시설로 행정실과 교무실이 통합 운영되어 있으므로 교직원간에 소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으나 시스템이 하나로 운영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

다.

다. 학교급별 고유업무 처리와 학교 급간 원활한 업무 조율을 하기 위한 급별 교감 배치가 필요하다. 초·중통합학교 교감은 두 개의 학교 행정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과중한 업무가 부담되고 있으므로 업무 축소하는 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라. 복수자격 소지 교사를 우선 배치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초등교사와 중등교사 자격을 소지한 복수자격 소지 교사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과정 공동운영, 겸임 발령에 의한 실질적인 상호 수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예체능 교과와 과학, 영어교사가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수업에 대한 모색도 필요하다.

마. 초·중통합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아이들의 성장발달과정, 9년 교육과정 등 전문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초·중통합학교운영 학교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전문적인 학습공동체가 필요하다. 또한 초·중통합 학교 운영에 대한 목적,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3. 시사점

가. 공통의 특색교육활동과 창의적체험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맞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었다. 무지개학교 6년 동안 학교 비전과 교육과정에 대한 고민을 토대로 일회성 행사 교육활동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계획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음.

나. 공간 통합이 초등과 중등의 교육과정과 학교문화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게 되었으며, 초·중통합학교에서 아이에 대한 교육활동이 연속적으로 진행되어 아이의 성장과 학

력에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다. 소규모학교에서 원만한 대인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다. 대부분 소규모 학교는 학생수가 20명 내외이나 초·중 통합 학교는 학생수가 60명 내외에 해당된다. 유치원생과 초등 저학년은 중학생 선배들의 멘티가 되고, 중학생들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의 멘토가 되어 같등이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
- 라. 초·중교사 동아리활동 운영을 통해 학생발달과정, 학생중심교육과정, 수업에 대한 역량이 강화되었으며, 교과에 따라 초·중 수업에 대한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다.
- 마. 김장김치 담그기 봉사활동, 지역민과 함께하는 유치어울마당, 평생교육을 통해 학교공간이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민과 함께 공동체를 마련할 수 있는 장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다.
- 바. 초등과 중등의 교육환경과 문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같등의 요소가 있으나 이것 또한 교사와 관리자의 마인드의 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초·중등 통합학교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통합운영이 달라지므로 교사와 관리자의 연수와 교육에 의해 새롭게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사. 초·중등 9년 교육과정이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며, 연속성 있는 교육과정으로 아이들의 장점과 개성을 신장시킬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 아. 중학생에 맞는 또래 집단의 교육활동 또한 중요함을 알 수 있게 되었으며, 십대들의 갖는 정서와 문화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주변 지역 학교간의 교육활동 연계가 필요하다.
- 자. 초·중통합학교 운영에 의해 중학교 학생 수가 안정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초·중 통합학교는 통폐합 위기가 없으므로 교육환경과 시설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며 교육환경이 다른 지역에

비해 우수한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다

차. 초·중 통합 9년 학부모님 활동을 통해 초·중등 교육과정에 대한 학부모님의 이해도가 높은 편이며, 학부모, 교사가 교육 활동 동반자 역할을 한다.